‘뻔함’은 가고 ‘의외성’은 온다

(시편 126:1~6)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뻔함’은 가고 ‘의외성’은 온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뻔함’은 가고 ‘의외성’은 온다

찰리 채플린(Charlie Chaplin)에 관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채플린과 극작가 맥 아서가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드디어 맥 아서가 침묵을 깨고 채플린에게 물었습니다.

“뚱뚱한 부인이 바나나 껍질 위에서 미끄러지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라고 하자 채플린이 말합니다. “그러게요. 새로워야 할 텐데.”라고 합니다. 다시 맥 아서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바나나 껍질을 보인 다음에 뚱뚱한 부인을 나타나게 할 것인지, 뚱뚱한 부인이 나타난 뒤에 바나나 껍질이 보이게 할 것인지.”라고 합니다. 그러자 채플린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색다른 재미를 보여줘야 돼요. 반전의 묘미라고나 할까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뚱뚱한 부인을 보이게 한 다음에 바나나 껍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을 발견한 부인이 조심스럽게 피해갑니다. 그러다 뚜껑이 열린 맨홀 안으로 쑥 빠져버립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찰리 채플린의 평생의 노력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예상을 벗어나는 낯섦과 엉뚱함과 의외성을 끊임없이 생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찰리 채플린의 작품을 찾습니다.

배우들의 과제는 주어진 캐릭터로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예상하고 그리는 뻔함을 벗어나

도록 연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화를 보고 감동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외성이라고 말합니다. 구도나 아름다움의 표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나올 때에 시대를 초월한 명화로 불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도 해당됩니다. 축구애호가들은 축구의 의외성 때문에 축구를 좋아한다고 대답합니다. 한편 야구애호가들은 야구에는 축구에 없는 의외성이 있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삶에도 의외성이 있을 때에 감동과 감격은 생겨납니다. 의외성은 뜻밖의 일입니다. 따져보면 삶은 의외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부터가 의외입니다. 내 뜻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김새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닌 의외의 사건입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호불호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판단할 수 없으니 뜻을 세울 수 없고 소원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을 넣어주시면 그 판단을 따라 움직이면서 살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심을 받습니다. 내 뜻과 판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외로 작용합니다. 매일 매일을 의외성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사랑하심이었고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기에 아담에게는 모두 의외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일상을 채우던 그 많던 의외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일 매일이 뻔함의 반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 의외성의 사건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퇴색할 뿐만 아니라 좋게 여겨졌던 의외성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좋지도 않았고 별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의외성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무색해질 정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맙니다.
타락은 곧 의외성이 없는 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는 뻔한 길을 가기 위해서 기를 씁니다. 그러나 이 뻔함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명화가 의외성을 포함할 때에 시간을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매일 감격과 감동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의외성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 시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에 의외성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뻔한 삶을 쫓아내고 의외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을 마친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BC. 605~586년까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1차포로 BC. 605년, 2차포로 BC.597년, 3차포로 BC.586년 유다가 망할 때입니다. 3차 포로귀환 때에 떠난 이들조차도 반

세기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 1차포로 때부터 67~68년 정도로 대략 70년이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공포하여 모든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외에도 각 나라의 종교의 성지인 성전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토록 하였습니다.

선민들도 이러한 칙령을 받고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1차 포로귀환에서부터 무려 79년이 흐른 후에야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BC.537년에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79년 후에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BC.444년에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면서 마무리지어지게 됩니다.

본 시는 이 79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1차 포로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79년의 세월은 깁니다. 오히려 포로생활을 하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흐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족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1차 포로귀환 때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그때의 감격을 되살려보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조차 이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음을 회상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격을 회상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와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포로귀환이 전혀 실제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의외성을 가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고 바랄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지배층에 대해서 어떠한 시도라도 했다면 어느 정도의 기대는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일들로 인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의 주인이 되자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칭했습니다(사45:1).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외성은 주변에 같이 살던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귀환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성전에서 약탈당했던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의외성으로 인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1차 포로귀환은 이러한 의외성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답답함이 생겨났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것은 유대 땅의 불모지였던 네게브 광야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게브 광야에 와디(우기)가 찾아오면 졸지에 흙탕물이 범람하는 강이 생겨납니다. 언제 이곳이 먼지 날리던 광야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범람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1차 포로귀환으로부터 몇 십 년이 지나도록 2차 포로귀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인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네게브 땅에 우기가 찾아오면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돌연한 의외성의 사건을 통해 또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5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앞선 구절들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울면서 뿌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확을 기대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법입니다.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상황 자체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의외성을 표현하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을 과장을 통해 비유로 삼은 것입니다. 씨 뿌릴 때와 수확할 때의 상황이 전혀 다르듯이 의외성의 사건을 통해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공포해서 의외성의 사건인 포로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선민들에게 꿈꾸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의외성의 삶을 여러분은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은 곧 우리의 삶이 의외성만으로 채워짐을 뜻합니다. 에덴에서는 선악과의 존재가 의외성을 상징했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의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기에 에덴은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의외성은 가뭄에 콩 나는 것처럼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만나본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의외성을 제시한다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세상에 대해 가지는 나의 미래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

다. 그러나 나 스스로 세상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고, 지금 내게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지금 나의 판단과 계획과 소원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창조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동선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상황에 대해 죽었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앞에 배우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배우자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도 매일 의외성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3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곧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죽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형제를 대할 때에 그 형제 자체가 나의 뜻밖에 의외의 사건입니다. 나는 지금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라는 말도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백 명이나 더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곧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배우자와 가족들이 의외이며 새롭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새롭습니다. 이러한 의외성으로 가득 차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이었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에 이제 십자가 나무를 통해 에덴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세상의 모든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죽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 곧 이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로 인해 기뻐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은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아이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된 자리는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죽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으니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의 사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떻습니까? 강남이나 판교의 40평짜리 아파트를 목표로 10년간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기간이 채워질수록 지금 사는 집은 지긋지긋해집니다. 40평으로 들어간다는 희망이 없으면 25평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40평에 대해서도 죽고 25평에 대해서도 죽습니다. 그럴 때에 여태 살아온 25평 아파트도 새로워 보입니다. 제로에서 하나님이 얹어주신 축복과 의외의 자리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하나의 행동이 삶의 뻔함을 사라지게 하고 지루함을 사라지게 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신앙이 삶을 의외성으로 살려냅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쟁기로 갈아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만들듯이, 십자가 생활화는 딱딱하게 굳어져버린 우리의 반복된 삶과 일상을 갈아엎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족과 배우자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집이 월세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월세집도 의외의 축복이 됩니다. 고작 월세 집으로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 과장 같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엄밀하고 정확하고 치밀할수록 몸 하나 살아있는 것까지도 의외의 감격이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꿈꾸는 것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음을 드리시고, 바로 저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며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외성의 사건들이 될 것이며, 꿈꾸는 것 같은 일들로 삶은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루의 유일한 과제이자 임무로 생각함으로써 반복되는 지루한 상황들이 살

아 꿈틀거리는 의외성의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